

지역미술관들 알찬 연말연시 기획전

곡성 아산조방원미술관 '제3시대_Y' 작가 13명 환경문제 고민 설치 작품
담양 대담미술관 '담양을 말하다' 서영실·채지윤·최수상 작가 참여
아트 프로젝트 '소금 같은, 예술' 신안 소금박물관 심아빈 개인전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열리는 '제3시대_Y' 전.

〈아산조방원미술관 제공〉

지역 미술관들이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나들이 삼아 한번씩 다녀와도 좋을 기획이다.

곡성 아산조방원미술관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3시대_Y' (2022년 2월6일)전을 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높아지는 요즘, 거대담론으로서 환경 이슈를 넘어 개인의 삶 속에서 작가들이 고민한 결과물을 만나는 기획이다.

13명의 참여작가들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나무, 흙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4개의 설치 작품을 공동제작했다. 전시작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변화되는 게 특징이다. 참여작가는 김경란·김기현·김다인·김재승·명미희·오혜숙·윤운덕·이선희·장용림·정일·조광석·한미경 등이다.

외부기획자로 참여한 김경록 문화공간 창 대표 씨는 해마다 환경문제를 주제로 아산미술문화재단 소유의 숲 일대와 미술관 전시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대표는 "이번 전시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인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이제는 선택할 때라는 의미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열리는 '담양 레지던시: 담양을 말하다' 전 (2022년 1월5일까지)은 전남문화재단 후원으로 올 한해 동안 진행했던 레지던시 결과발표 단체전이다.

올해 레지던시 참여자는 모두 3명. 회화에서 설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을 회화에 담아온 서영실 작가, 전통공예인 칠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하지 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한 채지윤 작가, 담양의 특산물인 대나무를 이용해 죽세공품에서 파생된 의미들을 작업으로 연결시킨 최수상 작가다.



안 소금박물관에서 만나는 심아빈 작가의 작품.

결과전에서는 3명의 작가들이 담양이라는 공간을 통해 만나 작업하고 공유하며 만들어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담양 지역의 특성과 전통적 문화예술자원인 대나무를 연구하고 작품에

접목시켜 담양 죽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또 참여 작가들 사이의 교류 뿐 아니라 주민들과 작가들의 협업을 통해 죽공예, 회화, 설치, 칠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콜라보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신안 태평염전(대표이사 김상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소금창고 건물을 활용해 소금 박물관을 운영중이며 랩프랩(디렉터 신수진) 주관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트 프로젝트-소금 같은, 예술'도 진행하고 있다.

3회째를 맞았던 올해 공모에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179명의 작가가 지원, 최종적으로 최수현, 카를로 코린스키·서수진, 심아빈 작가를 선정했다. 선정 작가 중 심아빈 작가의 개인전 '되기 Becoming' (2022년 2월6일까지)전이 소금박물관에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심 작가는 태평염전에서 12주간 머물며 자연의 섭리와 그에 맞춰진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작가는 바닷물이 소금이 되는 과정에서 태양과 바람 밀물과 썰물을 매일 목격했고, 그 때 느낀 감정들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또 다리가 놓이기 전 섬과 육지, 섬과 섬 사이를 이었던 '노릇길'에서 자연에 순응한 지역민들의 지혜를 발견, 노릇길을 형상화하고 자연의 섭리를 상징하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려내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작품에 담았다.

김승희, 강성은 등 여성 시인들이 쓴 70편을 '몸', '나', '사랑', '시간', '모성', '시선' 등 6부로 나눠 묶었다. '#젠더.소설'은 백신애, 오정희, 박완서, 최은, 한강, 배수아, 김애란의 단편 7편을 실었다.

젠더를 주제로 한 두 권은 문학평론가 김지은과 이광호가 엮었다. 문학평론가 이혜원과 우찬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시 62편과 소설 6편을 골랐다.

김승희, 강성은 등 여성 시인들이 쓴 70편을 '몸', '나', '사랑', '시간', '모성', '시선' 등 6부로 나눠 묶었다. '#젠더.소설'은 백신애, 오정희, 박완서, 최은, 한강, 배수아, 김애란의 단편 7편을 실었다.

젠더를 주제로 한 두 권은 문학평론가 김지은과 이광호가 엮었다. 문학평론가 이혜원과 우찬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시 62편과 소설 6편을 골랐다.

김승희, 강성은 등 여성 시인들이 쓴 70편을 '몸', '나', '사랑', '시간', '모성', '시선' 등 6부로 나눠 묶었다. '#젠더.소설'은 백신애, 오정희, 박완서, 최은, 한강, 배수아, 김애란의 단편 7편을 실었다.

젠더를 주제로 한 두 권은 문학평론가 김지은과 이광호가 엮었다. 문학평론가 이혜원과 우찬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시 62편과 소설 6편을 골랐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5000여점 전수조사



5개월 조사...내년부터 보존 작업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소장작품 5000점이 넘어섬에 따라 2022년 개관 30주년을 앞두고 5개월 동안 소장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지난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당시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기증 작품 196점을 시작으로 현재 5236점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전수 조사를 통해 작품의 상태확인 및 향후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미술관 작품관리 담당자와 지역의 보존수복 전문기인 김종욱소장(김종욱 회화복원 연구소)이

함께 한 이번 조사는 작품의 소장 유·무 및 소장 위치를 확인·정리하고 현재의 작품 상태를 조사해 향후 보존처리 대상·비대상을 구분, 소장품 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작품의 등급을 ▲순상 정도에 따라서 보존처리가 시급한 작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존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 등으로 구분했다. 내년부터 시급한 등급의 작품을 중심으로 보존처리를 통해 향후 손상될 여지를 해소하고 보존수복을 통해 작품 수명을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해남 출신 서정복 시인 '부칠 수 없는...' 펴내

"내 아내 운영자는 나보다 먼저 시인이었다. 칠순이 넘는 내게 시를 공부하라 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2017년 7월 18일 아주 먼 여행을 갔다."

일찍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팔순의 시인이 아내에게 바치는 시집을 펴냈다.

해남 출신 서정복 시인이 펴낸 '부칠 수 없는 편지' (문학들)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편들로 가득하다. 시인의 아내는 처음으로 시를 쓰라고 권했지만 정작 작품집을 발간할 때는 먼 길을 떠나 곁에 없었다.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가슬가슬한 이 천으로 옷을 지어 입고/ 산책하듯 갈 것인데/ 당신의 숨씨를 자랑하며/ 품낼 것인데"

위 시 '부칠 수 없는 편지'는 아내를 위한 마음이 가득하다.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 외에도 시에는 지난 시절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가 시가 많다. '나는 아홉 살 가장이었다', '할머니의 깨소금단지'

등의 작품은 옛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조곤조곤 풀어내는 이야기는 아련한 향수는 물론 삶에 대한 아련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대훈 시인은 해설에서 "80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딱이나 어렵다는 나이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는 나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며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해 매진하였다"고 평한다.

한편 서정복 시인은 '문학춘추'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조시학' 신인상을 받았다. 심호 이동주시인 기념사업회장과 고산문화축전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젠더·생태...주제어로 묶은 문학선집 발간

문학과지성사 '해시태그 문학선' 시·소설 엮어 1차분 4권 펴내

젠더와 생태 등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모은 문학선집이 나온다.

문학과지성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주제어를 선정하고 이와 연관된 문학작품을 선별해 묶

은 새로운 시리즈 '해시태그 문학선'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흩어져 있던 문학작품들을 하나의 주제어로 묶어 문학의 언어가 얼마나 내밀하게 동시대의 뜨거운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준다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1차분으로는 올 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어로 젠더와 생태를 정하고 각각 시, 소설 편을 엮어 총 4권을 펴냈다.

'#젠더.시'는 김혜순, 나혜석, 이수경, 김소연,

#젠더.소설

김승희, 강성은 등 여성 시인들이 쓴 70편을 '몸', '나', '사랑', '시간', '모성', '시선' 등 6부로 나눠 묶었다. '#젠더.소설'은 백신애, 오정희, 박완서, 최은, 한강, 배수아, 김애란의 단편 7편을 실었다.

젠더를 주제로 한 두 권은 문학평론가 김지은과 이광호가 엮었다. 문학평론가 이혜원과 우찬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시 62편과 소설 6편을 골랐다.

/연합뉴스

한국-EU, 한강 '채식주의자' 연극 공동 제작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16일 온라인으로 제8차 문화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는 이 자리에서 건축과 연극 분야 등에서 양측의 주요 사업을 알리고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립극단 측에서는 벨기에 리에주극장과 협업을 통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공동 제작하는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분야에서도 공동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